"美·中 충돌은 전세계에 재앙…패권 추구하지 않을 것"

美방문 시진핑 주석 시애틀 만찬 연설…해킹 의혹은 부인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2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의 충돌은 양국 모두에, 또 넓게 보면 전 세계에 재앙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양국이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이날 첫 방문지인 시애틀에서 양국 기업인 등을 상대로 한 만찬 연설에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서 이해와 신뢰는 깊어지고 소원함과 의혹은 줄어들기를 원한다"며 "중국은 결코 패권(헤게모니)과 확장을 추구하지 않을 것"라고 밝혔다.

시주석은 또 미국이 제기하는 중국의 해킹 의혹 등과 관련해 "중국은 해킹에 연관돼 있지 않고, 해킹을 지원하지도 않는다"고 부인하고, "중국은 사이버 안보의 견고한 수호자로서 사이버 범죄와 싸우기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 미국과 긴밀히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과거 중국의 빈곤상, 그리고 중국의 빠른 경제 성장이 이러한 가난을 어떻게 극복시켰는지 등을 언급하면서 더 많은 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공격적인 경제 발전 정책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22일(현지시각) 워싱턴 주 에버렛 보잉필드 공항에 도착해 손을 흔들고 있다. 시 주석은 시애틀에서 사흘간 머문 뒤 워싱턴으로 향한다. /연합뉴스

美·中 퍼스트레이디 '판다 외교'

펑리위안·미셸 스미스소니언 판다 전시관 방문

미국과 중국의 퍼스트레이디들이 판다를 매개로 양국간 우호 협력을 부각하는 '소프트파워' 외교에 나선다.

중국 환구망은 미국 언론을 인용, 시진핑 국가주석의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25일 오전 10시30분(현지시간) 워싱턴 D.C. 스미스소니언 국립동물원 판다 전시관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23일 보도했다.

두 사람은 이 곳에 있는 판다를 찾아 지난 40년간 판다 보호에 함께 기울여온 양국간의 협력을 기념할 것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중국을 상징하는 동물인 판다는 수교 전 서먹했던 미국과 중국의 간극을 좁히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백악관은 두 퍼스트레이디가 동물원에서 특별성명도 발표한다고 소개했다.

남다른 패션 감각을 자랑하는 두 사람의 패션 대결도 관심이다.

펑 여사는 22일 시애틀 북쪽 에버렛 페인필드 공항에 도착하면서 차이나칼라가 돋보이는 상의와 화초무늬가 그려진 치마로 이뤄진 흰색 중국풍 투피스를 입고 비행기 트랩을 내려와 첫 패션을 선보였다.

같은 날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州)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한 프란치스코 교황을 영접하기 위해 미셸 여사는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다. /연합뉴스

EU, 난민 12만명 분산 수용안 표결 통과

회원국 할당…체코·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은 반대

유럽연합(EU) 각료회의에서 난민 12만명 분산 수용안이 표결 통과됐다.

22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EU 내무·법무장관 회의에서 가중다수결 방식의 표결로 EU 회원국에 난민을 할당하는 방식의 분산 수용안이 합의됐다고 EU 의장국인 룩셈부르크가 밝혔다.

그러나 이날 표결에서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헝가리는 반대했으며 핀란드는 기권했다고 밀란 코바네치 체코 내무장관이 트위터를 통해 전했다.

가중다수결은 EU 각료회의의 의사 결정 방식으로 1국 1표의 단순 다수결과와 달리 회원국의 인구, 경제력 등을 감안해 차등 배정된 표를 합산해 EU 인구의 65%, 회원국의 55%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날 회의에서 독일, 프랑스 등이 난민 강제할당 방식에 대한 합의를 촉구했으나 이에 대해 동유럽 국가들이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아 표결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독일 정부는 필요하다면 표결을 거쳐서라도 EU 회원국 간 난민 수용 부담을 나누는 '난민 쿼터제'를 관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차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 유입사태에 직면한 EU가 난민 수용을 둘러싸고 분열 위기에 처한 가운데 열리는 EU 각료회의는 EU 집행위원회가 제의한 난민 할당 방안에 대한 합의를 모색했다.

EU 집행위는 난민 도착지인 그리스, 이탈리아, 헝가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EU 회원국들이 형편에 따라 골고루 난민을 할당해서 받아들이는 방안을 제의했으나 동유럽 국가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합의에 난항을 겪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9일 유럽의회 국정연설에서 이탈리아, 그리스, 헝가리로 들어온 난민 16만명을 EU 회원국이 분산 수용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융커 위원장은 기존의 난민 수용 목표 4만명에 더해 12만명을 추가로 수용할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이를 EU 회원국에 강제 할당할 것이며 이에 대해 EU 각료회의에서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4일 열린 EU 내무 및 법무장관 회의는 EU 집행위가 제의한 난민 강제 할당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이날 다시 소집된 EU 각료회의는 동유럽 국가의 반발을 무릅쓰고 표결 처리를 강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난민 강제할당 방식을 자발적 쿼터 수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고 EU 외교소식통이 전했다.

특히 헝가리가 할당 체제에서 빠지고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등 발칸 지역의 다른 경유국으로 들어온 난민을 분산 배정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헝가리는 자국에 들어온 난민을 다른 EU 회원국으로 분산 수용하는 EU 집행위의 제안으로 혜택을 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헝가리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헝가리가 난민 기착지로 확정될 것을 우려해 이 방식을 거부했다.

EU 각료회의 결정은 23일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최종 추인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난민 어린이의 천진난만 눈망울 지난 21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 버스 터미널에서 국경 도시로 향하는 버스 티켓을 사려는 한 난민 어린이의 이마에 보트가 그려져 있다. 유럽으로 가려는 시리아 난민들은 터키 서부 에게해 해안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그리스 섬으로 가는 경로를 택했지만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비용이 많이 들자 대거 육로를 몰리고 있다. /연합뉴스

위안부 기념비 건립 촉구 결의안

샌프란시스코 시의회 만장일치 가결

샌프란시스코 시의회가 22일(현지시간) 일본군 위안부 기념비 건립을 시 행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샌프란시스코는 미국에서 위안부 기년비 건립을 추진하는 첫 대도시가 된다.

위안부 기념비는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로너트파크, 뉴욕주 롱아일랜드,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유니온시티,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미시간주 미시간시티 등에 세워졌으나 모두 규모가 작은 도시들이다.

샌프란시스코 시의회는 이날 시 청사 대회의실에서 시의원 11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체회의에서 에릭 마 의원이 발의한 제150764호 '샌프란시스코 시 겸 카운티가 "위안부들"을 위한 기념물을 설치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심의·의결했다.

런던 브리드 의장은 이날 14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이 결의안이 당일 의원들의 일부 문구 추가 제안을 거쳐 만장일치로 가결됐음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에드 리 시장이 이끄는 시 행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절차를 밟아 기림비를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설치할지 구체적 계획을 세우게 된다.

마 의원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공원 등 공공장소에 이를 건립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결의안은 7월 12일 제출됐으며, 그간 상임위원회 토의와 공청회를 거쳤다.

샌프란시스코 시의회는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일본 오사카(大阪) 시장이 8월 말 보낸 "전쟁터에서의 성 문제와 관련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만 지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을 공식 참고 자료로 검토했다. /연합뉴스

프란치스코 교황 美 방문…오바마 직접 영접

프란치스코 교황이 22일(현지시간) 오후 미국에 역사적인 첫발을 디뎠다.

교황청 기와 성조기가 내걸린 교황 전용기는 이날 오후 3시50분께 워싱턴D.C. 인근 메릴랜드 주(州)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했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 내외와 두 딸이 전용기에서 내려오는 교황을 직접 영접했다. 조 바이든 부통령 내외도 영접을 나왔다.

교황 전용기 트랩 아래에 레드카펫을 깔고 28명으로 구성된 의장대 사열 환영행사도 준비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공항 영접은 매우 이례적으로, 교황에 대한 각별한 예우의 뜻이 담겨 있다.

앞서 2008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을 공항에서 영접하긴 했으나, 그 이전까지는 다른 외국 정상들과 마찬가지로 백악관에서 교황을 맞이하는 게 관례였다.

아르헨티나 대주교를 지낸 프란치스코 교황의 미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